

Mosel

독일의 와인산지 모젤

모젤지역은 라인헷센(Rheinhessen), 팔츠(Pfalz), 바덴(Baden),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에 이어 독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와인산지이지만 약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미네랄과 과실 향이 풍부한 리슬링 와인은 전 세계의 많은 와인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리_ 와인칼럼니스트 박찬준 / 사진자료제공_ 독일와인협회(DWI), 모젤와인협회(Moselwein e.V.), 크리스토퍼 아르놀디(Christopher Arnoldi)

모젤의 포도밭 (사진 제공 : 독일와인협회(DWI))



라이히스부르크(Reichsburg)성이 있는 코헨(Cochem)



01



02

01_ 독일의 와인산지 모젤 (지도 제공: 독일와인협회(DWI))
02_ 포도품종 리슬링 (사진 제공: 독일와인협회(DWI))
03_ 리슬링의 아로마 (사진 제공: 독일와인협회(DWI))

모젤의 위치와 자연적 조건

와인산지 모젤은 모젤강, 모젤강의 지류인 자르강과 루버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코블렌츠(Koblenz)에서 페를(Perl)까지의 모젤강 유역, 제리히(Serrig)에서 콘즈(Konz)까지의 자르강 유역, 리베리스(Riveris)에서 트리어(Trier)시의 루버(Ruwer)區까지의 루버강 유역이 와인산지 모젤을 형성한다. 전에는 모젤-자르-루버(Mosel-Saar-Ruwer)로 표기되었지만 독일 와인법(Weingesetz)의 개정으로 2007년 8월 1일부터 모젤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모젤은 다시 6개의 지구(Bereich), 즉 가장 경사진 포도밭이 있는 테라스모젤(Terrassenmosel, Burg Cochem이라고도 표기함), 유명한 포도밭이 가장 많은 중부모젤(Mittelmosel, Bernkastel이라고도 표기함) 이외에 상부모젤(Obermosel), 모젤토어(Moseltor), 자르(Saar), 루버탈(Ruwertal)로 분류된다.

모젤의 경사진 포도밭들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계곡의 형태에 의해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강에서 반사되는 햇빛도 받을 수 있으며, 포도밭에 많이 있는 점판암들은 낮에 흡수한 태양열을 밤에 발산하여

모젤은 독일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포도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들이 형성된다.

모젤의 와인

화이트 와인이 전체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함으로써 모젤은 독일의 13개 와인 산지 중에서 화이트 와인의 생산 비율이 가장 높다. 9,000 헥타르가 조금 넘는 전체 포도밭의 약 60%에서는 대표적인 품종인 리슬링이 재배되고 뮐러-투르가우(Müller-Thurgau, 약 14%), 엘블링(Elbling, 약 6%), 케르너(Kerner, 약 4%)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풍부한 미네랄에 과일 향과 적당한 알코올 도수를 가진 리슬링 와인이 모젤의 대표적 와인이다. 이러한 와인은 특히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고 각 나라의 가벼운 음식들에 잘 어울린다. 리슬링으로 만든 드라



03



유럽에서 가장 경사진 포도밭인 브렘의 칼몬트(Bremmer Calmont)

이한 화이트 와인은 사과, 배, 복숭아, 살구와 같은 밝은 색 계열의 과일 향을 지니며 종종 레몬이나 자몽의 향도 느낄 수 있고 허브의 뉴앙스가 풍기기도 한다. 이러한 와인은 생선이나 닭 요리, 샐러드와 같은 가벼운 음식에 잘 어울린다. 스위트한 리슬링 와인은 파인애플, 망고 등의 이국적인 과일 아로마를 가지며 아로마가 풍부한 치즈나 단 디저트 음식에 이상적인 동반자이다.

대표적 와이너리



와이너리 프뎀(Joh. Jos. Prüm)

모젤의 대표적 와이너리에는 프리츠 학(Fritz Haag), 독트르 루젠(Dr. Loosen), 에곤 뮐러-샤르츠호프(Egon-Müller Scharzhof), 프뎀(Joh. Jos. Prüm), 하이만-뢰벤슈타인(Heymann-Löwenstein), 술로스 리저 (Schloss Lieser), 카르트호이저호프(Karthäuserhof), 마르쿠스 몰리토르(Markus Molitor), 상크트 우르반스-호프(Sankt Urbans-Hof), 라인홀트 하르트(Rheinhold Haart), 베른카스텔러 닥터로 유명한 독트르 타니쉬 (WWE. Dr. H.

Thanisch – Erben Thanisch)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에곤 뮐러-샤르츠호프, 프뎀, 독트르 타니쉬가 생산하는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Trockenbeerenauslese)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100대 와인에 선정되기도 한다. 독트르 루젠에서 리슬링으로 만든 QbA 등급의 2008년 빈티지 화이트 와인은 와인 스펙테이터가 2009년에 100대 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와이너리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와이너리가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와인 메이커 악셀 파울리(Axel Pauly)는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포도밭에서 전통의 양조 기술과 가이젠하임 대학에서 양조학을 전공하며 배운 새로운 양조와 마케팅을 접목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년 봄에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 악셀 파울리는 스웨덴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 제안한 레이블 디자인을 자신이 추구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어울린다고 즉시 채택하여 화제가 되었다.

트리어(Trier)에 위치한 SMW(Saar-Mosel Winzersekt GmbH)는 샴페인 제조방식에 의해 리슬링과 피노 누아로 질 좋은 켄트(Sekt, 독일의 스파클링 와인)를 생산한다. 모젤와인협회의 회장인 아돌프 슈미트(Adolf Schmitz)씨가 운영하는 이 와이너리는 독일의 대표적 켄트 생산자 중의 하나이며 독일 내의 스파클링 와인 분야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모젤 와인을 한국에 알리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한 슈미트씨는 삼성 등 한국 기업과 제휴하기도 했고 주한독일대사, 한독상공회의소 소장, 5성급 호텔의 총지배인 등과 친분을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관광과 축제

모젤은 관광과 휴양으로도 유명하다. 굽이 굽이 흐르는 모젤강과 경사진 포도밭이 보여주는 경치 그 자체가 이미 좋은 볼거리다. 독일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와인 애호가들이 모젤의 경치를 구경하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즐기 위해 많이 방문한다. 평지에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이나 약간 언덕진 곳에 포도밭이 있는 다른 와인산지와는 달리 단조롭지 않다. 도시라기 보다는 마

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릴 듯한 모젤강가의 낭만적인 작은 와인 산지들과 포도밭의 위쪽에 간혹 보이는 옛 성들이 모젤의 경치와 관광을 더욱 즐겁게 해 준다.

특히 모젤 와인박물관(Moselweinsteinmuseum)이 있는 베른카스텔-쿠에스(Bernkastel-Kues), 라이히스부르크(Reichsburg)라는 성이 있는 코헨(Cochem), 독일 내에서 로마의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트리어(Trier), 브렘(Bremm)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비탈진 포도밭 칼몬트(Calmont) 등이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다.

모젤에는 여러 개의 와인박물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베른카스텔-쿠에스에 있는 모젤 와인박물관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지하 동굴 형태의 와인 샵 비노텍(Vinothek)과 함께 와인문화센터(Weinkulturelles Zentrum)를 형성하고 있는 이 박물관에는 원래 와인 생산에 사용하던 각종 도구와 기계들이 전시되



모젤 전체를 대표하는 모젤 와인 퀸, 라노마 슈투름(Ranoma Sturm) (사진 제공: 모젤와인협회(Moselwein e.V.))



04



05

04_ 베른카스텔-쿠에스에서 열리는 와인축제의 모습. 베른카스텔-쿠에스의 와인축제를 모젤라(Mosella)라고 부르는데 모젤라에 즉위한 안네 본(Ane Bonn)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크리스토퍼 아르놀디(Christopher Arnoldi))
05_ 브라우네베르크(Brauneberg)의 와인축제 (사진 제공 : 모젤와인협회(Moselwein e.V.))

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대부분 디지털화 되었다. 현대적이고 영상과 모니터를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인상이나 포도생산자들의 땀 내음을 맡을 수 없는 기회는 많이 줄어들어 아쉽다. 반면 쉐하임(Senheim)에 있는 술락캄프-데소예(Schlagkamp-Desoye)라는 와인너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인 와인박물관에는 와인 생산에 사용되던 많은 도구와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현재의 소유자인 안드레아스 술락캄프(Andreas Schlagkamp)는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수집했던 것들을 모아 박물관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 하며 입장료 수입과 와인 판매의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모젤에서는 매년 수많은 와인축제가 열린다. 와인이 생산되는 곳마다 축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베른카스텔-쿠에스에서 열리는 '모젤 중류의 와인축제(Weinfest der Mittelmosel)' 이다. 시내 곳곳에 세워진 부스에서 모젤의 리슬링 와인을 시음할 수 있으며 모젤라(Mosella)라고 불리는 베른카스텔-쿠에스의 와인권이 즉위하게 되고 퍼레이드도 열리며 불꽃놀이도 구경할 수 있다. 최근에는 수공예 시장도 함께 열려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와인과 예술의 접목

최근 모젤에서는 와인과 예술의 접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와인과 관련된 행사에서 와인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수집가들이 모은 아티스트들이 디자인한 와인 레이블을 소개하기도 한다. 와인이 주제가 아니라도 예술적인 혹은 수공예적인 작품들을 와인과 함께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와인과 예술을 접목시킨 행사를 '와인문화(Weinkultur)' 라고 표현한다. 지금까지는 모젤 와인이 관련된 와인 문화적 행사가 모젤 지역 내에 국한되었지만 내년 5월 한국에서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국제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내년 5월 서울 국제주류박람회가 열리는 시기에 모젤와인협회는 독일과 한국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와인 아트 전시회를 주한독일대사관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금년 4월 모젤 지역의 작은 도시(Zell)에서 '와인문화의 밤(Nacht der Weinkultur)' 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시청, 지역 관광협회, 젊은 와인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에서 귄터 라쉬(Günter Rasch)와 알프레드 슈타블레(Alfred Stable)는 그들이 수집한 와인 레이블을 전시하였고 하이디 보그너(Heidi Bogner)는 오크통 조각에 그린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하이디 보그너는 자신의 작품을 모두 '나는 오크통이었다(Ich war ein Faß)' 라고 부른다. 아크릴로 와인과 관련된 단순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만 중구의 오크통을 사용하여 와인과 연관성을 표현한다.

모젤 지역에서 와인을 주제로 한 아트에 대표적인 예술가는 마나 빈즈(Mana Binz)이다. 대학에서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마나 빈즈

는 독일과 벨기에에서 변호사와 기업컨설팅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직업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1970년부터 관심을 가진 예술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과 모젤 지역의 작은 와인 마을 리저(Lieser)에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는 마나 빈즈는 현대 미술에 있어서의 새로운 미학, 인간의 인지 그리고 시간과 회상의 가치 등을 자신의 작품에 표현하려고 한다. 캔버스, 천, 벽, 유리 등 다양한 소재에 자신의 작품을 표현하는 마나 빈즈는 2008년부터 유리에 '와인 속의 세상(Welten im Wein)' 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작품을 만들고 있다. 230 x 35cm 크기의 유리에 채색된 유리가루를 입히고 그 위에 다시 유리를 덮은 다음 이를 특수 오븐에 직접 구워서 만든 '와인 속의 세상' 이라는 작품은 모두 77개를 완성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약 50% 정도가 완성되었다. 이 작품에 유리를 사용한 이유는 와인이 유리병에 담겨서 이기도 하지만 유리에는 불, 물, 흙, 공기의 4요소가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와인 속의 세상' 이라는 시리즈를 만들게 된 계기는 와인 병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즉 와인이 병에서 나와 세상을 만나고 또한 세상의 여러 요소들이 와인 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와인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무분별하게 마실 경우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를 의식적으로 또한 상상적으로 강조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한다. 금년 9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젤 와인박물관에서 '와인 속의 세상' 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하고 있는 마나 빈즈의 작품은 내년 5월에 서울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현재 모젤와인협회가 추진 중이다. 모젤 지역에서의 와인과 예술의 접목을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와인너리가 있다. 블라이



06



07



08



09



10



11_ 볼프강 니데켄(Wolfgang Niedecken)이 그린 와인 레이블
12_ 로버트 게른하르트(Robert Gernhardt)가 그린 와인 레이블
13_ 프리츠 바이글레 베른슈타인(Fritz Weigle Bernstein)이 그린 와인 레이블
14_ 프리드리히 칼 베히터(Friedrich Karl Waechter)가 그린 와인 레이블

(Bullay)에 있는 슈타인(Stein)이라는 와인너리인데 이 와인너리에서 생산하는 여러 개의 와인에는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레이블로 만들었다. 로버트 게른하르트(Robert Gernhardt), 프리드리히 칼 베히터 (Friedrich Karl Waechter), 프리츠 바이글레 베른슈타인 (Fritz Weigle Bernstein), 요하네스 나브라트 (Johannes Nawrath) 등의 독일 화가와 볼프강 니데켄(Wolfgang Niedecken)이라는 BAP 록 밴드의 가수 등이 레이블을 위해 그림을 그렸는데 슈타인 와인너리의 소유자인 페터 슈타인(Peter Stein)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06_ 모젤 와인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마나 빈즈(Mana Binz)의 작품 '와인 속의 세상(Welten im Wein)'
07_ 와인 박물관 술락캄프-데소예(Schlagkamp-Desoye)
08_ 리저(Lieser)에 있는 마나 빈즈 소유의 호화 갤러리. '와인 속의 세상' 뿐만 아니라 다른 유리 아트 작품도 볼 수 있다.
09_ 하이디 보그너의 작품 '나는 오크통이었다'
10_ 와인 박물관 술락캄프-데소예(Schlagkamp-Desoye)의 오너와 함께